

고려 청자, 비취(翡翠)의 찬란함,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특별전, 2018.9.1- 11.25(일)

이번 전시회는 동양도자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일본 안에 있는 대표작 250 점을 모아서 고려 청자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하려고 한다. 고려 청자는 고려왕조(918-1392 년) 때 만들어졌다. 고려 왕조가 사라진 뒤 500 년이 지난 20 세기 초부터 고려 왕릉을 비롯한 여러 무덤이나 유적에서 고려 청자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비취 보석의 아름다움에 견줄만큼 아름다운 유약색을 지닌 고려 청자는 당시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면서 일약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고려왕조는 불교가 국교였으며 도교도 번성했다. 일찍이 중국에서 전해온 불교 문화와 더불어 차나 술을 마시는 문화가 왕실이나 귀족, 절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러한 불교 의례나 차나 술을 마시는 문화와 더불어 차도구로서 고려 청자가 탄생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당, 오대 월요(越窯) 청자나 북송 여요(汝窯) 청자와 비슷한 청자가 만들어졌다. 월요나 여요, 고려 청자는 맑고 풍부한 비취색 유약이 특징이다. 더우기 고려 청자는 뛰어나고 정밀한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에서조차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천한 제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들 고려청자는 호국불교로서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고, 극락왕생을 희구하는 사람들의 기원이나 사상이 녹아 있으며 고려왕조 문화의 정수를 아낌없이 표현하여 만들었다. 올 2018 년, 고려왕조 건국 1100 년을 맞이하여 이번 전시회는 불심과 차문화, 음료 문화를 중심으로 고려 청자를 매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30 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고려 청자를 재현하여 만든 작품도 같이 전시하여 고려 청자의 매력과 정수를 밝혀보려고 한다.



1. 청자 양각 용파도무늬 구룡 정병(靑磁陽刻 龍波濤文 九龍淨瓶), 大和文華館所藏

(せいじょうこくりゅうはとうもん きゅうりゅうじょうへい), 12C. 높이,33.5cm, 석가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아홉 용이 향수를 뿌렸다고 하는 구룡관정(九龍灌頂,きゅうりゅうかんじょう) 설화를 나타냈다. 아홉 용을 모티프로 만든 작품으로는 유일하다. 부처 앞에서 정화된 물을 올리는 불도구로서 정병에 잘 맞는 모습이다. 정밀하게 만든 아홉 용 머리는 강력한 장엄과 위용을 드러내며 아홉 용 머리에 맞게 용 몸통이 정병에 유려하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용 머리는 몸통 머리와 이어져 있어서 아홉 용 머리에서 정수가 솟아져 나오게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비취색이 가장 아름다운 12세기 것으로 비취 그 자체를 나타낸 작품이다. 고려 청자의 비취색은 당시 금은

그릇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 작품의 형태나 모습, 색깔 등에서 고려 청자 비취의 최고 절정의 걸작이다.



2. 청자 양각 연당초무늬 정병(靑磁陽刻 蓮唐草文 淨瓶), 네츠(根津)미술관,

せいじょうこく はすからくさもん じょうへい), 고려 12C. 높이 36.5cm,정병은 부처상 앞에 정수를 올릴 때 쓰는 불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관음보살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려 불화에도 정병을 손에 든 관음보살상이 자주 보인다. 이 작품은 가는 목에서 어깨에 걸쳐서 물이 흐르는 것같은 아름다운 곡선이 몸통으로 이어져 있는 당당한 기품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몸통 한 면에 널리 퍼진 연당초무늬는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양각에 머물러 있는 청록색 유약은 입체감은 비취처럼 반짝이며 청량감을 준다.

앞이 셋으로 갈라진 자고(慈姑)는 자비(慈悲)의 자(慈)와 글씨가 같아서 상서로운 무늬로 알려져 왔다. 위 아래 세 단으로 나뉘어 교차하는 연꽃과 연잎, 자고무늬는 매우 규칙적으로 그려져 있다. 마치 고려 불화에 그려진 부처의 옷에 그려진 무늬를 보는 것과 비슷하여 정병 무늬로 잘 어울린다. 그릇 바닥에는 음각으로 '효구각(孝久刻)'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무늬를 새기는 전문 조각가 이름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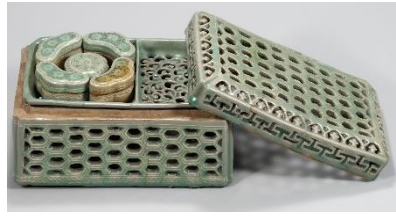


3. 청자 투각 당초무늬 상자(靑磁透彫 唐草文 箱,せいじすかしぼり からくさもん はこ)

12C., 높이 11.8cm, 작품 전체에 새겨진 정밀한 투조기법은 고려 청자의 기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전체에 풍부하게 덮여진 청자 유약은 구석구석 깊은 맛을 더해 주어 보석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비취 청자 이름 그대로 걸작이다.

그릇 전체에는 섬세하게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고, 상자 안에는 옆으로 나뉘어진 두 공간이다. 덮개 가운데는 마름꽃 형태로 창문을 두고 목단무늬를 두고 둘레에 당초무늬로 채웠다. 옆쪽에는 여의주무늬를 두른 화려한 무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과 비슷한 유물이 전라남도 장흥군 무덤에서 청동거울과 더불어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속에는 작은 단지가 들어있다. 화장품 그릇으로 보인다. 이 작품 역시 부속품은 없지만 같은 용도였을 것이다.



청자 상감 투각 거북등 무늬 상자(靑磁 象嵌 透刻 龜甲文 箱子)

전라남도(全羅南道)-장흥군(長興郡) 모산리(茅山里) 고분(古墳), 높이 12.1cm, 12.8×22.4cm, 1939년 4월, 무덤에서 출토될 당시 상자 안에는 청자 상감 국화무늬 기름병과 청동 거울 그리고 침통(針筒) 등이 들어 있었다. 상자의 형태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나전상자 모양을 취하고 있다.

뚜껑을 열면 입구 부분에 걸치도록 선반이 놓여 있다. 상자 내부는 가운데에 칸막이를 두어 구분했으며 투각기법으로 당초무늬(唐草文)가 장식되어 있다. 몸통과 뚜껑에는 거북의 등 모양을 투각하였으며, 거북등무늬(龜甲文) 외곽에 흰 상감 선을 돌려 무늬가 돋보이게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검색, <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757>, 2018.9.2

중국 도자기,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상설전, 2018.9.1- 11.25(일)



비청자 꽃병(飛靑磁花生, こくほう・とびせいじ はないけ), 중국 원(元) 나라, 14C.

용천가마(龍泉窯), 높이 27.4cm, 高 27.4cm, 유약 위에 철화 반점이 뿌려진 청자는 일본에서 비청자라고 하여 차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 작품은 그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이 병은 옥호춘(玉壺春, ぎょっこしゅん)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홀쭉한 목과 풍만한 몸통이 대조적이며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 굽 아래 5mm 쯤 유약이 벗겨져 있다. 드러난 태토는 짙은 적갈색이다. 고노이케(鴻池, 에도 시대



고베에서 술을 만들던 회사에서 재벌이 되어 산화은행을 거쳐 지금은 미즈비시은행의 일부가 되었다.) 집안에서 전해져 왔다. 비슷한 작품이

①,②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https://collections.vam.ac.uk>)과 ③스위스 바우어 수집품(<http://www.fondation-baur.ch/en/apercu-des-collections/pbouteillep>)에도 있다 .→①Longquan ware. Bottle, stoneware with celadon glaze, China (Zhejiang province), Yuan dyansty (1279-1368), Height: 21.9 cm, Diameter: 11.4 cm, <http://collections.vam.ac.uk/item/O495036/bottle-unknown/>, →②Bottle, stoneware with stamped decoration under a green glaze; China, 13th century, Height: 19.1 cm, <http://collections.vam.ac.uk/item/O494873/bottle-unknown/> →③Ming dynasty (1368-1644), early 15th century (prob. Yongle period, r. 1403 - 1424), height 32.5 cm, Chine, Jiangxi, imperial kilns of Jingdezhen



유적 천목 찻사발(油滴天目, こくほう・ゆてきてんもく ちゃわん), 남송(南宋)·12-13C.,

건요(建窯), 지름 12.2cm 천목은 흑유 찻사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북쪽 천목산(天目山)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적 천목은 복건성 건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잔(建盞 (けんさん))이라고 부른다. 물 위에 뜬 기름 방울과 같이 보이는 금, 은, 갈색으로 빛나는 반점에서 유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유적은 유약에 들어있는 철분이 유약 겉에 결정화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적주(滴珠)라고 한다. 입 가장자리에 펼쳐진 금복륜(金覆輪)은 가장자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지만 강조된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가마쿠라(13C.) 때 일본에 전해져서 관백 도요토미히데즈구(豊臣秀次), 니시혼간지 절, 교토 미즈이 집안, 와카사 사카이 집안 등을 거쳤다. 남송 때 유행한 천목 받침대 세 점이 같이 전해지고 있다.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http://www.moco.or.jp/intro/map/>